

M.O.B

MAGAZINE OF BNT SPACE

NO.13

05. AUGUST 2013

발행. 비엔티발전위원회



PUBLIC ISSUE

2013년 공공시설물디자인 시민공모전

PROJECT NEWS

삼성생명 LIFE DESIGN CENTER.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랑데뷰홀 리모델링

삼성생명 FINANCE CAFÉ 리뉴얼. 삼성전자 근로자용 안전교육장

B'S CAFÉ

2013 BNT SPACE 상반기 조직활성화

출처 : 서울디자인교육지원센터

市, 아름다운 서울의 추억 만들기 위한 디자인 선정

- '2013년 공공시설물디자인 시민공모전' 수상작 51점 선정

- 서울의 광장, 공원과 조화되는 '예술적인 벤치·의자',
'공공시설물' 2개 부문 실물로 제작해 전시회 개최 후 특성에 맞는 장소에 설치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시민이 디자인하다>

서울시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민 공모전'의 2013년도 수상작 51점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서울의 추억' 을 주제로 서울의 광장, 공원 등에 설치되어 아름다운 서울의 추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벤치·의자 디자인 부문', 서울의 광장, 공원 및 도심내 가로변 또는 대형축제 등과 공유·공감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총 257점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응모하였다.

작품 심사를 위하여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등 관련 분야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벤치·의자 부문에서는 김진섭·강안나의 'Space O'가, 공공시설물 부문에서는 백서경·김보혜의 '딱 정류장' 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벤치·의자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Space O'는 광장 등에서 앉고 기대고 누울 수 있는 타원형 벤치로서, 광장이라는 탁트인 장소에서 서로 교감하며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한 벤치이다.

공공시설물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딱 정류장'은 어린시절 즐겨 놀았던 딱지치기의 추억을 컨셉으로 하여 딱지를 접는 과정을 정류장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돌아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밖에 벤치·의자 디자인 부문에서는 금상 이태훈·이현호 외 은상 2점, 동상 3점, 장려상 9점, 입선 10점 등이 선정되었으며, 공공시설물 부문에서는 금상 공민경·도현지 외 은상 2점, 동상 3점, 장려상 8점, 입선 10점 등 총 51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9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품은 실물로 제작하여 전시회를 개최한 후 작품 특성에 맞게 장소를 선정·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의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될 공공시설물을 널리 보급, '소통'과 '공감'에 뿌리를 둔 '희망서울'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PROJECT NEWS 1.

> 삼성생명 LIFE DESIGN CENTER



7월 초,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가능한 '삼성생명 라이프 디자인센터'를 오픈 하였다.

전용 면적 150평 규모로 100명 수용 가능한 대교육장과 세미나실을 비롯해 미팅룸과 휴게공간이 배치되어진 삼성생명 '라이프 디자인센터'는 입주 업체의 각종 행사 및 커뮤니케이션, 자체적인 교육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1호점의 긍정적인 운영으로 주요 산업단지의 맞춤형 연수 교육시설이 계속 확대 되었으면 한다.

<글. 이승하>

> SAMSUNG ELECTRONICS _ 기흥 캠퍼스 랑데뷰홀 리모델링



기흥 캠퍼스 내 랑데뷰 홀은 단지 내에서 외곽에 위치하며 남자들만 사용하는 기숙사 식당으로 소외된 장소인 만큼 많이 노후화 되어 있었다.

하루의 반을 회사에서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밥 먹는 시간 만큼은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밥을 먹는다면 어떨까.. 자연이 어우러진 집 마당에서 밥을 먹는다면 행복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에, 디자인 컨셉을 “Natural Garden”으로 하여 직원들에게 생기 있고 서로 활력에너지를 나눌 수 있게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접근하였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치 내 집 앞마당에서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Refresh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기본으로 하되 Take Out존을 별도로 마련하여 혼자서 간단히 밥을 먹는 직원들 또한 배려하였다. <글. 박수정>

PROJECT NEWS 2.

> 삼성생명 파이낸스카페 TYPE.2 (먹골/모종/효목/칠성/중대전점)



이번 리뉴얼된 삼성생명 파이낸스 카페는 최근 가산디지털 단지에 오픈한 로드샵과 통일된 컨셉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최대한 Simple하고 Modern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기존의 Full wall로 막혀있던 컨설팅 룸을 1,500높이의 낮은 파티션으로 구성하여 편안함을 한층 더 강조하였으며, 글라데이션 형식의 블루칼라로 브랜드이미지를 함께 표현하였다. 여기에 Yellow컬러와 텍스트 사인으로 형성된 그래픽으로 한층 밝고 경쾌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또, 가구 모듈화를 통해 각 지점별 통일성과 공간 실용성을 높이고 비용절감 및 시공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글. 조완교>

> SAMSUNG ELECTRONICS _ 안전교육장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당사 안전교육장이 공사 3주의 과정을 거쳐, 8월 1일 드디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총면적 52평으로 이루어진 이번 삼성전자 안전교육장에는

최대 50명 수용가능한 교육장과 근로자 안정실, 안전용품 전시관, 안전사무실 및 근로자 휴게실까지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관련 교육과 홍보용 책자가 구비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글. 이병덕>

B'S CAFE 1.

> 2013 BNT SPACE 상반기 조직활성화

일시: 2013.06.14 / 위치: 청계산



B'S CAFE 2.

> HAPPY BIRTHDAY 🎁

<07월>

- 07.07 : 디자인실 김지은 과장
- 07.09 : 건축사업부 김성호 차장
- 07.16 : 디자인실 동수진 대리
- 07.22 : 건축사업부 김상환 과장
- 07.24 : 리모델링1사업부 김동원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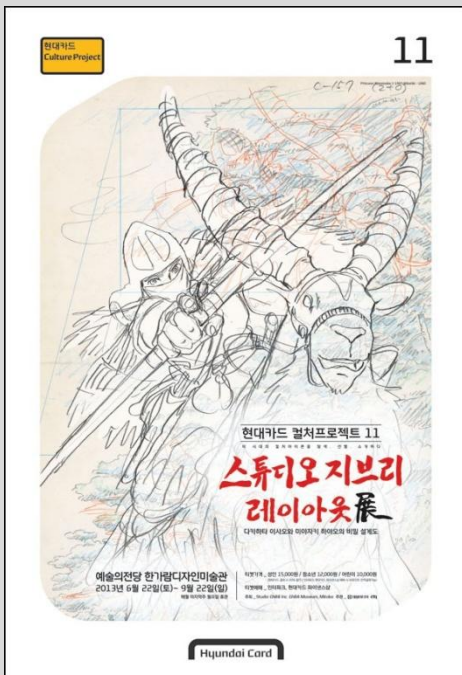
<08월>

- 08.06 : 건축사업부 공희건 과장
- 08.08 : 리모델링2사업부 김영환 차장
- 08.15 : 인테리어사업부 장관선 주임
- 08.20 : 건축사업부 임상엽 부장

<09월>

- 09.19 : 리모델링2사업부 권순상 부장
- 09.20 : 리모델링1사업부 조창욱 과장
- 09.21 : 인테리어사업부 이형근 차장
- 09.25 : 인테리어사업부 이경서 대리

> EXHIBITION /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1 스튜디오 지브리 레이아웃

- 일 시 2013. 6. 22(토) – 9. 22(일)
am. 11:00 – pm. 8:00 / 입장 마감 pm. 7:00
- 장 소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스튜디오 지브리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해외 전시이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작품<모노노케 히메>,<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비롯한 28편의 레이아웃 원화 1,300여 점을 전시하였다.

수작업으로 그려지는 레이아웃에는 다른 드로잉에서는 느낄 수 없는 풍부한 창조성과 상상력이 흘러 넘칩니다.

관람객 여러분들은 스튜디오 지브리 레이아웃을 통해 다카하타 이사오감독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그들의 상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2013

- 일 시 2013. 9. 6(금) – 11. 3(일) / am. 9:00 – pm. 6:00
- 장 소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21세기 디자인시대를 맞아 광주의 디자인산업을 진흥시키고 한국은 물론 세계의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 문화도시 광주광역시가 2005년 창설하였다.

특히 창설 10주년 동안 국제적 기반과 긍정적 평가를 다져 온 광주비엔날레의 형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자인 전시행사를 접목시킴으로써 명실 공히 예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차원의 디자인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에 먼저 프리비엔날레(6.18~27)를 개최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이듬해 광주비엔날레를 공식 출범시키게 되었다.

